

中 증시 바닥 쳤나... 주요지수 반등, ETF 거래량 6배 급증

● 차이나 뉴스&리포트

글로벌 큰 손들이 중국 증시로 돌아오고 있다.

지난해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주요 도시 봉쇄까지 모두 고비를 넘기면서 이제는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는 인식이 커졌다. 상하이와 베이징 등 주요 도시의 봉쇄 완화 소식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맞물리면서 주요 지수들의 반등폭이 확대됐다.

7일 FT중문망에 따르면 지난주 외국인 투자자들은 본토와 홍콩 증시 간 교차 거래를 통해 280억 위안(42억 달러)을 순매수했다. 총 보유규모로 보면 고점을 기록한 올해 1월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중국 증시에 대한 시각변화를 보여주기에는 충분했다.

상하이 도시 전면 봉쇄가 풀린 지난



외국인, 주간 280억 위안 순매수
상해종합지수 연초이후 11.1% ↓
저점 대비 10%p 이상 반등 성공

“상대적은 물론 절대적 기준으로
중국 증시 진입하기 좋은 시기”
코로나 재확산 등 리스크 여전

/유투이미지

주에는 지수 상승폭의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량이 일일 평균의 6배까지 급증했다.

전일 기준 상해종합지수와 선전종합지수의 연초 이후 하락률은 각각 -11.1%와 -18%다.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저점 대비로는 모두 10%포인트 이상씩 반등에 성공했다.

자산 운용규모가 2조 유로에 달하는 아문디자산운용의 빈센트 모티에 투자 책임자는 “지금도 상대적은 물론 절대적인 기준으로도 중국 증시에 다시 진입하기에 좋은 시기다”라며 “현재는 주식은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스은행 롬바드 오디에의 스테판 모니에 최고 투자 책임자는 “중국 주식

에 대한 비중을 늘렸다. 악재들이 역전되기 시작했다”며 “브라질 등 올해 초 성과가 좋았던 신흥시장에서 중국시장으로 자금을 재분배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경제 중심지 상하이의 전면 봉쇄가 풀렸고, 수도 베이징 역시 정상화 수준에 돌입했다는 소식도 증시 반등에 대한 기대를 부추겼다.

JP모건체이스 웬디 리우 수석 아시아·중국 주식 전략가는 “2분기를 저점으로 보고 있다”며 “많은 애널리스트와 트레이더, 자산배분 담당자들이 상하이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하이 봉쇄 해제는 투자심리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리스크 요인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

중국이 엄격한 ‘제로 코로나’ 방역 지침을 고수하면서 향후 코로나19 재확산은 언제든 봉쇄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유동성

위기와 악화된 수요가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가속화되고 있다.

싱가포르 자산운용사 풀러튼의 로버트 세인트 전략가는 “도시 봉쇄가 완화된 후에도 반등의 강도는 예상보다 약했다”며 “여전히 대내외 환경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채권시장의 경우 전망이 좀 더 어둡다.

중국은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의 채권 구매에 대응하기 위해 채권시장을 완전 개방키로 한 바 있다. 문제는 중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현재 2.8%로 미국 국채와 거의 동일하다는 점이다.

얼라이언스번스타인 전정 아시아태평양 채권공동대표는 “이번 개방이 중국 국채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겠지만 다양한 경제적 우려와 수익률 차이를 고려할 때 자본 유입에 대한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4개 패키지 지원

추경호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재정·세제·금융·규제 지원 패키지 “공급망 관련 3법 제·개정 추진”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장기화되자 정부가 민간 기업에 대한 4가지 패키지 지원책을 들고 나왔다. 수입선 다변화, 생산시설 확충 등 민간 노력에 대해 재정·세제·금융·규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관련 3법’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차원의 공급망 교란 상황이 빈발하고 있어 경제 안보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추 부총리가 “공급망 위협의 포착 단계에서부터 위기 예방, 위기 시 대응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유다.

추 부총리는 “공급망 안정은 민간 노력과 정부 지원이 어우러져야 하는 긴밀한 협력 분야”라며 “수입선 다변화, 생산시설 확충 등 민간의 노력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재정·세제·금융·규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4가지 패키지 지원책 관련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참여를 공식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관련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IPEF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논

의를 이끄는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IPEF는 향후 참여국을 늘려가며 아태 지역의 핵심적 경제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라며 “경제계 등과 소통도 더 강화하고, 협상 과정에서 창설멤버로서 주도적인 ‘롤 메이커’ 역할을 수행해 공급망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보다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오는 12~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5년 만에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도 언급하며 “우리 국익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의지를 나타냈다.

정부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식량 위기 대응 관련, WTO 차원에서 논의 예정인 각료선언에 적극 참여해 협력할 계획이다.

WTO 각료 선언에는 농산물에 대한 부당한 무역 제한 조치 자체, 일시적·최소한의 식량안보비상조치, 세계식량계획(WFP)의 인도주의 목적 구매 식량에 대한 수출 금지·제한 부과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유병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허성우 국민재안비서관, 황준국 주유엔대사 지명자, 윤덕민 주일대사 지명자, 정재호 주중대사 지명자, 장호진 주러대사 지명자

尹 대통령,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내정

국무조정실장에 방문규 인선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김주현(64)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금융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이명박 정부 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겸 사무처장,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2019년에는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관련기사 4면>

또 윤석열 정부 첫 국무조정실장에는 방문규(60)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인선했다. 방문규 신임 국무조정실장은 서울대 영문학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무부와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한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윤덕민(63) 전 국립외교원장을 주일대사로, 정재호(62)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를 주중대사로, 장호진(61) 한국해양대 석좌교수를 주러대사로, 황준국(62) 전 주영대사를 주유엔대사로 각각 지명했다.

앞서 주미대사로 임명된 조태용 전 의원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의 첫 미·중·일·러 ‘4강 대사’ 인선도 마무리됐다. 각 대사 지명자들은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거쳐 정식 부임할 예정이다.

주일대사에 지명된 윤덕민 전 원장은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게이오기주쿠대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냈다.

주중대사로 지명된 정재호 교수는 국내를 대표하는 중국 전문가로 꼽힌다. 정 교수는 미국 미시간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고, 서울대에서 국제문제연구소장, 중국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주러대사에 지명된 장호진 교수는 외무고시 16회로 외교부 북미국장, 대통령 외교비서관의 경력을 갖고 있다.

아울러 주유엔대사로 지명된 황준국 전 주영대사로도 외무고시 16회로, 이명박 정부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박근혜 정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겸 6자 회담 한국 수석대표를 지냈고,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공석이었던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산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을,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국민재안비서관에 허성우(62)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 부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은행과 컬래버 ‘금융특화점포’ 속속 등장

>> 1면 ‘콘셉트 매장에 TV도’서 계속

300종이 넘는 와인을 8개 섹션으로 나눠 대륙별, 품종별, 레드·화이트 등으로 나눴다. 와인특화매장은 2020년 1100여개에서 지난해 말 4500여개까지 늘어났고 지난달 기준으로는 4600여개까지 늘어났다.

은행과 편의점의 컬래버레이션은 이미 대부분 편의점이 시도 중이다. GS25는 신한은행, CU는 하나은행, 이마트24는 KB국민은행, 세븐일레븐은 D

GB대우은행 등 각 편의점은 일반 ATM 기기 이상의 영업점 업무까지 처리 가능한 STM 기기를 통해 금융특화점포를 내놓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편의점은 판매액이 6.2% 증가했다. 4%대를 넘는 고물가 현상으로 같은 기간 일부 취급 상품군이 겹치는 슈퍼마켓 및 잡화점이 -4.6%, 대형마트가 -3.9%를 기록한 것과 큰 차이가 있다.

편의점이 홀로 성장을 이어가면서 대

형마트 매출도 앞섰다. 지난해 GS25, CU, 세븐일레븐 3사의 매출이 전체 유통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9%로, 대형마트 3사인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비율 15.7%를 앞섰다.

편의점 산업의 성장은 이어지고 있지만 업계 속내는 복잡하다. 지난해 기준 전국 편의점 점포 수는 약 5만1580개다. 지난해 12월 근거리 출점(50~100m)을 제한하는 편의점 자율 규약이 3년 연장됐지만 수도권은 이미 점포 포화 상태고 상대적으로 점포 수가 적은 비수도권 지역은 계속된 인구 감소로 신규출점을 통한 시장 우위 선점이 불가능한 상태다. /김서현 기자 seoh@